

**당뇨!** 당뇨 근본 원인 가능 개선제  
**프로지 골드**  
 ■ 혈당 조절 (공복혈당, HbA1c)  
 ■ 인슐린 분비 및 저항성 개선  
**PRO-Z USA (213)434-1170**

#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 위대한 사랑의 사도 故 임동선 목사 5주기 추모예배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의 설립자 고 임동선 목사 5주기 추모예배가 지난달 21일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월드미션대학교 윤임상 교수 사회로 진행된 예배는 월드미션대학교 남종성 교수가 기도하고 임병택 목사가 “그분은 누구신가”(시편 126:5-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테너 오위영, 최원현 씨의 특별찬양으로 고인을 삶을 노래했다.

임병택 목사는 “고 임동선 목사님께서 평생 사랑을 사랑과 인내, 기도와 전도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삶을 사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도로서 평생을 눈물과 인내로 복음의 씨앗을 뿌린 하나님의 종이였다”고 회고하며 “모든 고난과 시련을 감당하신 고 임동선 목사님의 사랑의 삶을 따라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인생이 되자”고 전했다.

윤임상 교수는 “월드미션 설립자이신 고 임동선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으로 제자의 삶을 살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며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 자신의 모든 것을 세상에 다 내놓으시고, 생이 다하는 순간까지 사랑을 통한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를 실천하신 이 시대 위대한 사랑의 사도였다”고 기억했다.

한편 고 임동선 목사는 1923년 경기도 부천 출생으로 서울신학대와 숭실대 철학과에서 공부하고 1948년 서울 아현성결교회 중고등부 전도사를 시작으로, 한국 공군 초대 군종감(대령)을 지내며 젊은 시절을 군복음화에 헌신하다가 퇴임 후 유학을 결심하고 미국으로 왔다.

한인 이민 선교의 선구자로 불렸던 임 목사는 1970년 47세에 ‘선교·교육·봉사’라는 3대 가치를 내걸고 동양선교교회를 사택에서 개척해, 1990년 은퇴하기까지 동양선교교



故 임동선 목사 5주기 추모예배

회를 LA를 대표하는 한인 이민교회로 성장시켰다. 1987년에는 전 세계 90여 개 교회와 기관을 지원하는 세계복음선교연합회를 조직했으며,

1989년에는 월드미션대학교를 설립해 선교사와 교회 지도자를 배출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다. 임동선 목사는 2016년 9월, 93세

로 소천하기 일주일 전까지도 남미 4개국 단기선교를 다녀올 정도로 선교에 그의 온 삶을 바쳤었다. 김동욱 기자

## 트럼프 재임 시절 “나는 복음주의자” 밝힌 미국인 더 많아



미국교회 예배 모습(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Fellowship Church

미국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 ‘거듭난 신자’ 또는 ‘복음주의자’ 라고 밝힌 백인 미

국인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일각에서는 많은 복음주의 지도자들의 친트럼프 성향으로 인해, 미국

인의 다수가 복음주의라는 수식어와 떨어졌을 것이라 추측했다. 하지만 지난 주 발표된 퓨 보고서는 2016년과 2020년 사이에 ‘복음주의 개신교인’ 또는 ‘거듭난 신자’ 라는 단어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백인 미국인이 오히려 늘었다고 밝혔다.

2016년 미국 트렌드 패널(ATP)을 사용한 조사에서 백인 미국인의 25%가 스스로를 ‘복음주의자 또는 거듭난 신자’라고 답한 반면, 2020년은 29%가 이에 동의했다.

성인 응답자 중 2%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복음주의적 정체성을 포기했으나, 같은 기간에 다른 성인의 6%가 복음주의적 정체성을 새로 갖기 시작했다.

퓨는 이 기간에 ‘친트럼프’ 성향을 가진 백인 미국인이 복음주의적 정체성을 채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으며, 트럼프 지지자의 16%가 자

신을 복음주의자라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인이 아닌 미국인 중에서는 2016년 당시에 26%가 ‘거듭난 신자나 복음주의 개신교인’이라 답했으며, 2020년에는 25%로 확인됐다.

또한, 설문에 답한 비백인 미국인의 7%는 2016년부터 2020년에 이러한 정체성을 포기한 반면, 거의 같은 비율이 ‘거듭난 신자 또는 복음주의 개신교인’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새로 선택했다.

퓨 리서치의 그레고리 A. 스미스 부국장은 “일부가 예상한 것과 달리, 새로운 분석에서 백인 미국인들 가운데에 ‘복음주의 대규모 이탈’은 없었던 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설문 결과가 “반트럼프 백인 복음주의자들이 트럼프 지지자들보다 ‘복음주의 꼬리표’를 버렸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을 명확

히 보여주지는 않는다”고 했다. 2016년 이후,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복음주의 지도자들과 교회의 트럼프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교회의 증인됨의 사명에 전반적인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침례회 윤리종교자유위원회(ERLC)를 이끌던 러셀 무어 위원장은 당시 트윗에서 “소위 복음주의자들이 올해 복음에 끼친 피해를 회복하는 데에는, 80년대 텔레비전 전도자들의 스캔들보다 더 오래 걸릴 것”이라 비판한 바 있다.

이어 올해 7월, 미국 공공종교연구소(PRR)는 전체 미국인 중에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인의 비율이 2006년에 23%에서 2020년에 14%로 감소했다는 주장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설문 조사 자체가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유진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쁜 교집, 정직한 올림피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동희 원장**

**올림피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갈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가격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 월~금 : 8AM~6PM, 토 8AM~4PM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730-0112, (323)735-3180**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2022년 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11월 1일, 미국거주자 12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원격 수업도 지원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열어갈 '창의적 교회 사역 노하우' 공유

포스트 코로나와 미래교회 컨퍼런스가 "뉴노멀시대, 교회의 위대한 모험"이라는 주제로 10월 6일부터 20일까지 3주에 걸쳐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풀러튼 시에 소재한 CTS America(1025 S. Placentia Ave. Fullerton, CA 92831)에서 공개강좌로 진행된다.

CTS America(대표 백승국)와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의 공동주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남가주 지역 목회자들이 나서 팬데믹 기간 예배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시도했던 다양한 창의적 사역을 나눌 예정이다.

컨퍼런스 첫째 주인 10월 6일은 강

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와 김우준 목사(토론토조은교회)의 발제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영적 리더십'과 '창의적 복음 전도'라는 주제가, 둘째 주인 10월 13일에는 송병주 목사(선한청지기교회)와 이상훈 총장(미성대학교)이 발제로 '뉴노멀시대와 교회의 과제' '미래를 위한 변혁적 교회론'을 다루게 된다.

그리고 셋째 주인 10월 20일은 권혁민 목사(씨드교회)와 케빈 리 목사(새들백교회 온라인사역부), 이정엽 목사(LA온누리교회)가 발제자로 참여해 '뉴노멀 시대와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 '온라인 사역 전략' '본질에 충실한 양육과 훈련'이라는 3가지



주제로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컨퍼런스를 준비하는 CTS America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례없는 혼란과 위기 속에서 각 교회들이 교회와 예배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시도했던 모험적이고도 창의적인 사역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 팬데믹이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교회 변화의 촉매제가 되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어가 교회의 미래를 탐색하고 함께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컨퍼런스는 주제 강연과 함께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되며 입장료는 무료다. 김동욱 기자

## 미주 지역 故 조용기 목사 추모예배, 나성순복음교회서 거행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진행된 故 조용기 목사 추모예배에서 성도들이 조문하고 있다 ©기독일보

조용기 원로목사 천국환송예배가 본국에서 지난 18일 한국교회장으로 진행된 가운데 미주에서도 추모예배가 드려졌다.

지난 17일(금) 저녁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에 모인 미주 조문객들은 한국에서 거행된 조용기 원로목사 천국환송예배 영상을 함께 보면서 복음 전파에 헌신했던 고인의 삶을 기렸다.

추모사를 전한 순복음 북미총회 LA 지방회장 이상호 목사는 "우리의 큰 스승 되시는 조 목사님께서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시고 예수님 품에 안기셨다"며 "이제는 더이상 이 땅에서는 만날 수 없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 때까지 조 목사님의 삶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으로 모든 선한 싸움을 싸우겠다"고 전했다.

이어서 추모사를 전한 미주성서화 운동본부 공동대표회장 송정명 목사는 "고 조용기 목사님은 금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이자 탁월한 목회자였다"며 "이 땅의 복음 전파

와 영혼 구원에 헌신하신 공훈과 사랑의 실천자이셨다"고 회고했다.

나성순복음교회를 대표해 인사를 전한 장로회장 최종현 장로는 "고 조용기 목사님은 대조동 천막교회를 시작으로 5중 복음과 3중 축복의 신학과 순복음의 7대 신학 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설립하시고 오대양 육대주를 다니시며 주의 복음을 전하셨다"며 성령님과 동행하신 고 조용기 목사님을 좇아 나성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는 예배가 살아있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한국에서 거행된 고 조용기 목사의 천국환송예배는 조 목사의 50년 지기인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요 11:25-2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이철 감독(한교총 대표회장, 기감 감독회장)이 조사를 전했다.

조 목사의 제자이자 후임인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가 약력보고 및 감사인사를 전했다며,

조 목사의 차남인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은 가족들을 대표해 인사했다.

또 장종현 목사(한교총 대표회장, 예장 백석 총회장)가 대표기도, 이태근 목사(기하성 총회장)가 성경 봉독, 소강석 목사가 추모시 낭독, 박종화 목사(경동교회 원로, 국민문화재단 이사장)가 축도했다.

김장환 목사는 "이제 우리는 조 목사님을 이 땅에서 더 이상 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을 마치는 날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며 "유가족과 친지와 성도 모두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먼저 가신 조 목사님께 부끄럽지 않게 오늘도 내일도 아름다운 삶을 살자"고 권면했다.

이철 감독은 "목사님은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여의도라는 지역과 순복음이라는 교단의 한계를 넘어 세계의 교회가 되게 하셨다"며 "이제 이 교회는 세계 모든 교회의 모범으로서, 예수의 사랑으로 섬기는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동욱 기자

## 한인가정상담소 연례 기금 모금 행사 20만 달러 모금



한인가정상담소 이사진(맨 왼쪽 한복 캐서린 엄 소장, 맨 오른쪽 낸시 박 이사장)

한인가정상담소(KFAM·소장 캐서린 엄)가 어제 23일 LA 자연사박물관(Los Angeles County and Los Angeles Museum of Natural History Foundation) 야외에서 열린 제 38 회 연례 기금 모금 행사를 성공리에 개최했다.

올해 행사는 코로나로 인한 인원수 제약으로 예년 4~5백명 보다 다소 적은 150 여명이 참석하여 간소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직접 행사에 참여 못하는 후원자들을 위해 줌(Zoom)으로도 동시 진행됐다.

기금모금 행사명은 '라이즈 투게더(Rise Together)로 최근, 아시아 증오 범죄에 맞서 함께 힘을 모으자는 취지로 열렸으며, 이날 기부금 후원과 현장 기부를 통해 약 20만 달러를

모금되어 한인가정상담소를 위한 후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실감케 했다.

캐서린 엄 소장은 "한인가정상담소는 지난 38년간 한인사회의 관심과 후원 덕분에 지금까지 성장해 올 수 있었고, 한 인사회와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며 "아시아인들을 향한 증오범죄와 인종 차별을 근절하기위한 목소리를 함께 낼 수 있어서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올해 연례 기금모금 행사는 CBB 은행이 타이틀 스폰서로, AMKO Restaurant Furniture, Inc, Centerstone SBA Lending, Inc, 수잔 정 정신과 박사, 유진 김 성형외과, 한미은행,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사무실이 리더쉽 스폰서로 후원했다.

김동욱 기자

**코엠 커뮤니티 센터**  
KOAM Christian Community Outreach Center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립니다.

- 비영리단체등록
- 특허
-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 주 교육국(인준) 상담해 드림

**David Lee (213)422-8916, (818)523-1119**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http://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거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싸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저가 차량 운송
-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래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문의 1-877-580-2424 서울 (310)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 예장 국제총회 목사 안수식, 8명 목회자 배출

대한예수교장로회 국제총회(총회장 박병섭 목사) 목사 안수예배가 지난 25일 은혜한인교회(담임한기홍 목사) 비전센터에서 진행됐다.

이날 안수예배에서는 곽형일 목사(글로벌교회), 손영락 목사(은혜한인교회), 엘리야 한 목사(은혜한인교회), 헨리 송 목사(주님의 영광교회), 케빈 리 목사(은혜한인교회), 케빈 이 목사(에브리데이교회), 라이언 구 목사(IGM 서울교회), 사라 박 목사(마이애미 임마누엘 선교교회)등 모두 8명이 안수를 받았다.

안수예배는 김종욱 목사(국제총회 상임총무)의 사회로 최규남 목사(그레이스 미션대학교 총장)가 대표 기도하고 신승철 목사(얼바인 은혜한인교회)의 성경봉독에 이어 박병섭 목사가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마20:1-1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안수식 후 김광신 목사(국제 총회 중경총회장 GMI 총재)와 한기홍 목사(국제총회 중경총회장 GMI부총재)가 안수 받은 목회자들을 향해



지난 25일 은혜한인교회에서 진행된 대한예수교장로회 국제총회 목사 안수예배 ©기독일보

권면했으며, 최홍주 목사(에브리데이교회)와 신승훈 목사(주님의 영광교회)가 축사를 전했다.

김광신 목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

신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염려하다가 귀중한 일생을 마치게 된다”며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성경의 기준을 가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항상 기억하면서 사명을 완수하는 목회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한기홍 목사는 “목사로 부름을 받

고 치열한 영적 전투에 임하게 되는 목회자들은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사모하길 바란다”며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충성하며 승리하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최홍주 목사는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평생을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목회자들이 되길 바란다”며 “목회자들은 언제나 돈과 사랑, 권력의 유혹 앞에서 있음을 기억하고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신승훈 목사는 “하나님의 신실한 신 언약을 붙들고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영혼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양성에 충성을 다하라”고 전했다.

이날 안수 받은 목회들을 대표해 답사한 손영락 목사는 “믿음의 선배 목회자들의 발자취를 따라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는데 헌신할 것을 결단한다”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수호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동욱 기자

# 임현수 목사 “어떻게 자국민이 억류돼도 말 한마디 못하나?”

##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들 석방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촉구



임현수 목사 ©기독일보 DB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과 캐나다 사람들은 모두 북한을 빠져나왔는데 한국에서 잡혀간 분들은 아직 생사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어떻게 자국민이 잡혀도 말 한마디도 못합니까? 국군 포로와 남북 어부들의 생사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북한에 억류됐다가 캐나다 정부의 노력으로 2017년 8월에 풀려난 임현수 목사가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들의 송환에 무관심한 한국 정부에 일침을 놓았다.

지난 20일 캘리포니아 엘에이를 방문한 임현수 목사는 한인교계 목회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자유의 중요성과 복음 통일을 위한 방안을 나눴다.

임현수 목사는 이 자리에서 북한에 억류돼 있는 김정욱·김국기·최준길 선교사 탈북민 김원호·고현철·함진우 선교사의 석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안녕하세요! 18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돌려보내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할리 정

**푸엔테힐스 현대 HYUNDAI**

할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usajyk@gmail.com

그는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지미 카터와 클린턴, 트럼프 전 대통령 등 국가 원수가 직접 나서 구한다. 저 같은 경우도 캐나다 수상이 저를 내보내지 않으면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고 모든 무역을 끊겠다고 엄포를 놓았기 때문에 석방이 가능했다”며 “한국 정부는 자국민이 억류됐는데 어떻게 저렇게 무심할 수 있는지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임 목사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평양이 공산당의 근거지가 됐다. 2천명 밖에 안 되는 약의 골수들 때문에 죄 없는 2천만 북한 동포들이 노예처럼 자유를 유린당한 채 살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한편 김정욱 선교사(58)는 한국 기독교침례회 소속 목사다. 그는 2007년부터 중국 단둥에서 북한 주민 쉼터와 국수공장 운영으로 대북 선교와 인도적 지원사업을 병행해 오다가, 2013년 10월 체포되었다. 2014년 5월 무기노동교화형을 선

고 받았고 억류 8년째다.

김국기 선교사(68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중앙총회 소속 목사로서 2003년부터 북한 동포, 꽃재미, 조 선족들을 돌보며, 각종 의약품과 의류, 농기계 대북지원사역을 펼치다가 2014년 10월 체포됐다. 2015년 6월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고 억류 7년째다. 최준길 선교사(63)는 2014년 12월에 체포되어 2015년 6월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고 억류 7년째다.

또 탈북민인 김원호(4년째 수감), 고현철(미상), 함진우(미상) 선교사,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조선족 장문석(2013년 체포) 선교사가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 이들은 주 6일, 매일 10시간 이상의 강제노동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억류 초기에 이들의 재판과 기자회견 소식이 전해진 이후 관련 소식은 무절된 상태로 이제는 생사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김유진 기자

**‘굽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빛은 그를 의인화하지 않았다. Righteous Outlaw. 박삼원 목사 책의 편저자

책의 추천사들: 오대환목사(예수전도단), 주선영교수(장신대 명예교수) 이종환목사(예수전도단), 송정영목사(복음전대 공동대표), 권준목사(유일교회), 신정민목사(복음전대 대표), 유관식목사(통일포럼대표), 김인식목사(ICC 공동대표)

· 할리 책은 아래 연락처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20/편당 + \$5 우송료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굽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이 속편 ‘빛은 그를 의인화하지 않았다’는 북한 간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하성도들의 순교증언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기적같은 여정이고, 우리에게 복음통일의 완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울림이다. \* 책크라우드: GBM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는 세금영수증을 발부해 드립니다.

**기독인들속으로**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 (425) 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내 삶에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 미스바 금요성령집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두려우십니까? 웬지 모를 인생의 불안과 초조, 걱정, 근심에 눌려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보호하는 성벽이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 무너진 틈으로 사탄은 수없이 공격하며 우리는 그때마다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번 금요성령집회로 인해 그 무너진 곳을 다시 견고히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미스바 금요성령집회로 오십시오. 함께 모여 부르짖어 그 무너진 곳을 다시 세웁시다. 누구나 오십시오, 오시는 사람마다, 사모하는 사람마다 새로운 은혜와 영적인 신령한 은사, 그리고 신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집회 일정**

- 일시 : 10월 22일(금) 오후 7:30
- 10월 29일(금) 오후 7:30
- 11월 5일(금) 오후 7:30
- 11월 12일(금) 오후 7:30

■ 장소 : 주님의 교회 (333 S.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700-7311

**주님의 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 대예배 매주 주일(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수요 저녁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금요성령집회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시

토요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강사: 최 훈 목사 주님의 교회 담임

대한예수교장로회 **주님의 교회** The Lord's Church 333 S.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700-7311

✉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223**

### “선교가 순교로 이어지다”

필자와 오랜 기간 같은 선교 단체에서 동역하던 이 선교사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이 그의 부인에게서 왔다. “이 이사님 터키 이즈밀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이 한 줄의 소식이 주는 무게가 매우 컸다.

필자는 이분을 매우 존경하였다. 이분을 아는 모든 이들은 인자하고 열정적인 그의 성품과 사역에 존경심을 가질 것이다.

처음 남미 이민을 가서 성공적인 비즈니스와 신앙생활을 이어 가다가 미국 뉴욕으로 진출했다. 65세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 비즈니스를 정리하고 두 분은 선교에 올인했다. 남은 생의 선교를 100% 자비량으로 계획한 대로 그들 부부는 모든 재정을 선교사역 기금으로 전환하였다. 이미 두 자녀는 출가시켰고, 각기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업가들로 자리 잡았다.

선교에 전념하기 위해 뉴욕에서 서부 앨에이로 이사를 했다. 그들 부부의 선교적 삶의 타임스케줄은 이렇다. 일 년 열두 달에서 4개월은 미주에서 선교 동원 사역에, 또 4개월은 베트남으로 가서 처소를 하노이 대학 근처에 마련하고 대학 청년들을 만나고 집으로 초대하면서 복음 전도 사역에 전념했다. 60대부터 지금 70대 중반까지 매년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 남은 4개월은 열방의 선교지로 나가 선교단체에서 실행하는 여러 선교 사역을 참여했다.

부부가 같이 사는 기간은 미주에서 4개월이다. 다른 때는 부부 모두가 선교 리더십이 되어 각자의 선교팀을 인도하면서 참 멋지게 살았다. 필자가 아는 평신도 사역자중에 좋은 모델로 삼아지는 분들이다.

이번에도 4개월 열방 선교지 기간에 선교팀과 함께 터키 사역을 하던 중 이즈밀에서 갑자기 열이 나고 목이 아파 진단을 받은 결과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 곧바로 병원에 격리되었고 그와 접촉한 선교팀원들과 전도 대상자들을 찾아 모두 코로나 테스트를 받게 하였다. 감사하게도 다른 이들은 음성 판정으로 모두 건강했고 2주간 지켜본 후에 해산하였다.

선교팀은 모두 귀가하였으나 그분은 이즈밀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았고, 뒤이어 이집트 사역지에서 선교 중이었던 부



**이상훈 목사**  
멕시코장로회신학대학장

인이 이즈밀로 와서 남편을 지켰다. 들어갈 수 없이 병실 밖에서 유리창을 통해 남편을 바라보기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한 달가량 치료받다가 호전되는 듯 보였는데 갑자기 폐렴 증상이 심해졌고 호흡기가 약해지면서 고요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필자는 그가 만나서 복음을 전했던 베트남의 청년들이 그려졌다. 열방의 선교지에서 그가 만나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영혼들이 그려졌다. 미주에서 그의 죽음을 접한 많은 동역자들, 특히 청년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70대의 어른이면서 20, 30대의 청년들에게 마치 친구같이 다정했던 분 외모도 온화하며 단정하였고 집을 찾는 손님들에게 -그의 집은 항상 선교사들과 동역자들로 넘쳤다.- 직접 만든 식사로 늘 섬기던 모습, 잔잔하고 차분한 부드러운 음성. 그분은 항상 준비했던 대로 선교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고 싶다는 선교사적 소원을 이루셨다. 인간의 연약한 마음으로 다시 못 보는 서운함과 슬픔이 교차하지만 그래도 그분을 포함한 유족들과 동역자들은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

필자는 지난 7월 그가 터키로 떠나기 직전 휴스턴 선교캠프에서 안병히 다녀오시라고 인사한 그것이 이 생에서의 작별이 되었다. 필자 부부가 선교지에서 잠시 앨에이에 방문하면 그의 집에서 머물렀다. 아침에 그가 차려준 밥상이 그림자. 참 감사하다. 내 생애 그런 귀한 분을 알게 된 것, 그와 같이 같은 꿈을 꾸며 선교 동역한 것, 그분의 천국입성을 영안으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남은 생 그분을 기억하며 그리워하게 될 것 등이 참으로 감사하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홀로 남은 부인에게, 그리고 사랑하셨던 자녀들에게, 그리고 같이했던 동역자들에게 넘치기를 기도한다.

강태광목사의 인문학 강의



### 인문학으로 읽는 바울의 생애 ③ “헤롯 아그립바2세(6)”

헤롯 왕 권속 중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성경에 언급된 사람들을 찾아봅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는 자신의 재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눅8:3). 헤롯 안디바의 젖동생 마나엔은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행13:1). 헤롯의 아들 아리스토틀로스 집안은 로마 교회 성도(롬16:10)였던 것 같습니다(추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러나 헤롯 가문의 왕들은 대부분은 반 기독교적인 정책을 펼쳤고, 예수님을 박해하거나 기독교 신자를 박해하는 악역을 맡았습니다. 헤롯 가문의 죄악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가문은 6대에 걸쳐 90년간 유대 땅을 지배합니다. 당시 최고 권력자 집안이었습니다.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이 헤롯 아그립바2세입니다. 신약 성경에 헤롯이라는 이름이 45회 등장합니다. 특별한 설명과 이름에 대한 구분이 없이 사용됨으로 헤롯에 대한 이해가 모호합니다. 성경의 헤롯들과 헤롯 가문을 이해하는 것은 로마와 유대인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헤롯 가문 중에 헤롯 대왕과 방불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헤롯의 손자 헤롯 아그립바 1세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리스토틀로스는 하스몬의 왕족 마리아네의 아들입니다. 아리스토틀로스는 고모 살로메의 딸 베르니게와 결혼하여 다섯 자녀, 즉 헤롯 칼키스, 헤롯 아그립바1세, 아리스토틀로스, 헤로디아, 미리암네를 낳았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아리스토틀로스가 아리스토틀로스 4세로, 로마 16장 10절에 등장하는 아리스토틀로입니다.)

헤롯 아그립바1세는 네 남매를 남기고 54세에 죽습니다. 이렇게 남겨진 네 남매는 당시 17세였던 아그립바2세와 16살의 베니게, 마리아네 그리고 드루실라입니다. 당시 정세를 보아 약관 17세의 아그립바2세가 아버지 아그립바1세를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이어 유대를 통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그립바2세는 당분간 로마 황궁에 머물고 파두스에 이어 티베리우스 알렉산더가 유대 총독으로 파견됩니다. 이 알렉산더가 필로의 조카입니다.

아그립바1세 자녀들의 삶이 궁금합니다. 베니게는 알렉산더의 동생 마르쿠스 알렉산더와 결혼했는데 그가 요절하였고, 삼촌인 칼키스의 헤롯과 결혼했는데 그도 죽습니다. 오빠인 아그립바2세와 같이 지내다 근친상간의 소문이 돌자 길리기가 왕과 재혼하였다 곧 이혼합니다. 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티토(Titus)장군이 베니게를 사랑합니다. 티토 장군은 베니게를 사랑해서 그녀를 로마까지 데리고 가지만 로마 사람들이 그녀를 용납하지 않자 티토는 독신으로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48년에 칼키스의 헤롯이 죽자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친구의 아들인 아그립바2세에게 칼키스의 통치권을 주고, 이어 유대지역 왕으로 세워줍니다. 이어서 53년에 헤롯 빌립의 지역도 헤롯 아그립바2세에게 넘겨줍니다. 아그립바 2세는 유대 지방에 왕이 되었습니다.

헤롯 대왕의 증손자요, 비운의 왕자 아리스토틀로스의 손자인 아그립바2세가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는 가이사라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사도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 받기를 간청할 때 가이사라를 찾아가 바울을 만납니다. 아그립바2세는 벨릭스의 후임으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에게 베니게와 함께 인사하러 가이사라를 방문합니다.

사도행전에는 헤롯 안디바(행

4:27), 헤롯 아그립바1세(행12장) 그리고 헤롯 아그립바 2세(25장)가 등장합니다. 헤롯 아그립바 1세는 기독교 신앙인들을 박해하면서까지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 했고, 그의 야욕과 교만 그리고 죽음을 언급합니다. 사도행전 25장은 아그립바2세가 바울의 무죄를 알고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을 암시적으로 지적합니다.

사도행전과는 달리 요세푸스는 아그립바1세와 아그립바2세를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아그립바2세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글을 아그립바2세에게 보여주고, 자료도 제공 받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관계를 고려하면 아그립바2세나 그의 아버지 아그립바1세를 비판하는 기록을 남기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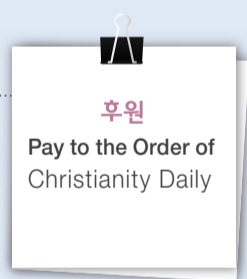
요세푸스는 아그립바1세를 동포인 유대인을 위한 정책을 쓰고, 예루살렘에 즐겨 거하고, 율법 제사를 준수했으며, 유대인의 회당 문화를 보장한 왕으로 묘사합니다. 특히, 아그립바1세가 뛰어난 정치력과 설득력으로 가이우스 칼리굴라황제와 클라우디우스 황제 등극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역사를 남깁니다.

요세푸스와 유사한 관점을 가진 역사가는 알렉산드리아의 필로입니다. 필로는 간략하지만 아그립바1세를 긍정적으로 묘사합니다. 필로의 조카가 아그립바1세 딸 베니게와 결혼했으니 아그립바1세와 사돈이었습니다. 필로는 가이우스 칼리굴라황제의 무도함을 비난하면서, 아그립바1세는 유대 신앙에 독실하지만 유약한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이 그리는 아그립바2세는 로마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답게 철저하게 친 로마적인 행보를 보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같은 로마 황실 인맥도 없고, 시대적 환경도 만만치 않아서 무기력하게 왕좌를 지키다 70년경에 예루살렘 패망 때 로마로 가서 로마 행정관이 되었으며 AD 100년경에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헤롯 가문이 몰락했고 역사의 뒷안길로 사라집니다!

##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다,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 7.2 강진, 열대성 폭풍

# 아이티 긴급 구호 요청

규모 7.2의 지진과 폭우를 동반한 열대성 폭풍으로 최소 1,419명이 사망하고 6,900명이 부상했으며 150만 명의 집이 파괴되고 수백 명이 실종됐습니다.



“간이 건물과 천막으로 구성된 아이티 마을은 거의 폐허 상태여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이티 주민들에게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UN과 함께 하는 월드쉐어USA는 질병과 기아에서 허덕이는 고아와 절대 빈곤 아동들을 사랑으로 후원하는 국제 구호 NGO단체입니다. LA 노숙자 지원, 아이티 쓰레기 마을 아동지원에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후원문의 (323)578-7933 강태광 목사  
3123 W. 8th St. #206, Los Angeles, CA 90005

# 교회 음악은 설교를 돋보이게 하는 악세사리인가?

## 포스트 코비드 시대, 사역의 변화에 따른 교회 예배와 음악(13)

본지는 월드미션대학교 윤임상 교수의 소논문 “포스트 코비드 시대, 사역의 변화에 따른 교회 예배와 음악”을 연재합니다. 오늘의 예배 음악을 진단하고 포스트 코비드 시대에 교회 음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편집자 주



국내 한 교회의 성가대 찬양 모습

### III. 종교개혁 시대 예배를 통해서 본 예배와 음악

#### 2. 오늘날 교회 예배에 주는 도전들

종교개혁은 개신교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다. 이 종교개혁의 본질적인 의도 중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하여야 할 예배를 바른 예배로 회복시키려 한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의 예배와 음악은 개혁가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변화되고 표현되고 있다. 특히 근대에 들어서 그 변질의 속도는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종교개혁자들이 오늘날 교회의 예배와 음악에 대해 던져주고자 함축한 메시지를 예배음악에 집중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 2) 개신교 예배와 음악

마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의 종교개혁과정을 통해서 증명된 것처럼 음악은 말씀의 권위를 올바르게 세우고 개신교를 탄생하게 함에 있어 밀거름이요 불씨가 되었던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즉 1517년 시작된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대중들에게 확산 되기 시작한 것은 앞서 종교개혁사를 요약해서 언급한 것처럼 1522년 루터가 음악을 만들어 대중들에게 보급하면서부터의 일이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된다. 즉, 루터가 개혁을 단행 했다면 그 개혁을 신학적인 뼈대를 든든히 세워 완성한 인물은 칼빈(John Calvin, 1509-1564)이라 말할 수 있다. 만약 칼빈이나 다른 개혁자가 종교개혁의 선두에 섰고 마틴 루터가 그 뒤를 따랐다면 당시의 종교개혁은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 감히 필자는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음악을 통해 개혁의 메시지를 빠르게 회중들에게 알리게 된 음악의 작용력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음악이란 여러 예술행위 중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가장 빠르게 주입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마틴 루터는 신학과 음악을 거의 대등한 위치에 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의 예전에 음악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신학자 로빈 리버(Robin A Leaver 1939 -)는 그의 책 Luter's 'Liturgical Music '에서 음악이 신학 다음 이라는 루터의 말은 단지 수사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음악이 신학과 거의 동일한 효과를 일으킨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루빈이 주장한대로 중세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을 음악의 주된 기능으로 생각했지만 마틴 루터는 음악을 이러한 기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기능으로도 여기게 되었다는 말이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이처럼 루터는 그의 신학사상에서, 그리고 그의 예전에서 음악의 대중성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중세 교회의 예배 전통에서 계승된 여러 부분의 음악을 그대로 수용하는 유연성을 보이게 된 것이다. 이것은 자유와 책임이라는 역설적 통합을 주창하며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음악이라면 자연스럽게 수용하게 된 것이다.

칼빈도 루터와 마찬가지로 예전에서 음악을 중요한 위치로 놓았다. 하지만 중세 교회 예배에서의 음악의 오용을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하여 당시의 음악을 세속화 되고 부패한 교회의 음악이라 단정짓고 거부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당시 유행되고 있는 모든 다성음악과 악기를 거부하고 단선율의 음악만 주장하게 된 것이다. 1539년 처음으로 22편의 시편 찬양을 묶은 스트라스부르크 시편(Strasbourg Psalter)을 시작으로 23년이 지난 1562년 시편 150편을 모두 묶어 제네바 시편가(Genevan Psalter)를 만들어

이것을 예배에서 유일한 찬양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 안에 내포된 칼빈의 마음을 살펴보면 찬양은 전심을 다해 오직 마음으로 찬양해야 하고 외형적으로 부르는 노래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즉 음악적 멜로디에 신경을 쓰기 보다 가사에 깊은 영적 의미를 담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어거스틴(Aurelius Augustine, 354-430)의 입장과 같은 맥락으로 그는 가사의 내용보다 음악에 끌려가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주장 하였다. 이것이 결국 칼빈으로 하여금 귀만을 즐겁게 하려는 매혹적인 예술음악들을 거부하고 단선율의 음악을 사용함으로써 음악의 단순함을 꾀하게 된 것이다.

이와같이 종교개혁의 핵심인 루터와 칼빈, 이 두 개혁자들은 음악의 사용면에서 사뭇 다르게 접근하였고 그들의 교회음악 철학 또한 극명하게 달라 보였다. 하지만, 본질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양의 관점에서 볼 때, 결국 같은 길이었음을 알게 된다. 이들이 오늘의 예배음악을 보면서 현대 예배자들에게 조언하고 충고하고 싶은 것들을 서술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예배에서 찬양을 하나의 옵션이나 악세사리로 생각하지 말라. 우리의 예배 속에 드러지는 찬양이 교회의 상황에 따라 삭제되거나 혹 설교자의 설교를 잘 하게 하기 위한 악세사리로 인식되어서는 안된다. 목회자의 설교가 중요한 것처럼 찬양 또한 옵션이 아니라 필수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어찌 보면 찬양이 때로는 한편의 설교보다 더 큰 힘을 지니기도 한다.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이 주는 재난 속에 예배에서의 음악은 설 자리를 더 많이 잃게 되는 안타까운 현

실을 보게 된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 없이 설교만으로 예배를 구성하기도 하고, 찬양은 간신히 집어넣되 아주 규모를 축소해서 사용하거나, 또 얼마 전까지는 찬양대의 찬양이 없어진 관계로 아예 그 찬양시간을 삭제해 버린 교회들도 많이 보게 된다.

이 같은 현상은 코비드 팬데믹의 비상 상황에서 예배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변화되면서 찬양을 없애거나 축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나는 일시적인 일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교회들이 규모를 조정해서라도 꼭 찬양의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 찬양은 예배를 구성함에 있어 옵션이 아니고 필수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예배에서의 찬양이 공연예술(Entertainment)이 되지 않게 하라. 오늘날 예배에서의 경배 찬양,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의 공연 예술 문화로 점점 더 취급되어 간다. 이로 인해 온갖 엔터테인먼트에 사용되는 장비와 악기들을 더 동원해서 화려함과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소리를 만들어 회중들을 현혹시키려 한다. 이에 회중들은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것이 아닌 찬양 연주를 다른 교회 혹은 찬양 연주 단체와 비교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리로 만들게 한다.

공연장과 예배 현장에서 표현되어지는 음악의 대상과 그 의미는 분명히 다른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공연장에서 음악 연주의 대상은 관중이고 그들에게 미적 요소와 감동을 주는 것이 전부이다. 하지만 예배에서 음악 연주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음악은 단순한 기능일 뿐이고 미를 표현하려는 것은 하나의 요소이다. 목적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존귀케 하는 연주(Performance)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삼위 하나님만 축복하는 찬양을 만드는 기능인이 아닌 예배자가 되라.

오늘날 찬양의 내용에는 복음을 말하면서 또 경배를 말하면서 그 안에는 미묘하고 복잡하게 내가 담겨져 결국은 내가 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그냥 단순하게 복음, 그리고 삼위 하나님에 대한 가사를 가지고 내가 아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찬양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이처럼 종교개혁자들이 오늘날 개신교 교회음악의 현실을 보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충고하고 싶은 세 가지 조언을 종합해 보면 세계의 주의(ism)로 요약할 수 있다. 즉, 합리주의(Rationalism)와 심미주의(Asceticism)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실용주의(Pragmatism)이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결코 합당하지 못한 요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뀌어야 한다.(계속)



윤임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

# 온라인교육의 선두주자

##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한국, 미국 내 24개 주, 그리고 세계 30개국에서 WMU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전 학위과정 ATS, ABHE 승인
- 100% 온라인 프로그램
- 미국 내 우수 기독교대학 편입 및 상위과정 진학 가능
- 신학, 상담학, 사회복지학, 간호학, 음악학, 예배학, 글로벌리더십학
- 수료과정, 준학사과정,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 연방 정부 학자금 보조 (Financial Aid)

주소: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 문의: (213) 388-1000, admissions@wmu.edu | 웹사이트: www.wmu.edu

# 이영훈 목사, 내년 미국 국가조찬기도회 주강사 초청받아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가 내년 2월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미국 국가조찬기도회 첫째 날 행사 주강사로 공식초청을 받았다.

미국 국가조찬기도회 회장 팀 월버그(Tim Walberg) 연방 하원의원은 9월 22일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한 국회의사당을 방문한 이영훈 목사와 환담하면서 "내년 미국 국가조찬기도회는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참석할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이영훈 목사님이 참석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길 바란다"고 공식 요청했다.

이영훈 목사는 이 요청을 수락하는 동시에, "한미 수교 140주년이 되는 내년 미국 국가조찬기도회에 맞춰, 한미 수교 140주년 기념대회를 워싱턴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 목사는 "이 행사에는 한국의 정치인과 기독교 지도자들이 함께 참석할 것"이라며 "행사를 통해 한



이영훈 목사가 9월 22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모습. ©여의도순복음교회

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양국 간 상호협력력을 증진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훈 목사는 또 워싱턴 D.C. 외곽에 위치한 미국 국가조찬기도회

본부로 이동해 토니 홀(Tony Hall) 전 연방 하원의원과 국가조찬기도회 관계자들도 만났다.

이 자리에서 토니 홀 전 의원은 "저는 한국을 10번, 북한을 7번 방

문했다"며 "한국이 전쟁의 상처를 이겨내고 이렇게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다.

이영훈 목사도 "한반도 평화를 위

해 무엇보다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며 "저희 교회는 북한 주민을 위해 병원을 짓고 있는데, 이미 유엔의 허가를 받았고 현재 미국 국무부의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다. 하루빨리 병원이 완공되어 북한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영훈 목사는 이번 방미 기간 동안 21일 주미 한국대사관을 방문해 문승현 정무공사와 환담하고,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위치한 '미(美)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을 방문해 헌화하고 관계자들과 면담하기도 했다.

이 목사는 이어 22일 미국 전직연방의원협회(FMC, the association of Former Members of Congress)가 주최한 스테이츠맨십 어워즈(Statesmanship Awards)에도 참석해, 크리스 쿤스(Chris Coons) 상원의원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과 만나 환담했다. 이대웅 기자

## 기장 총회, '여성' 김은경 목사 총회장 취임

### "어두움 후에 빛이... 주님께서 새 역사 이루실 것"



총회장에 선출된 김은경 목사. ©유튜브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제106회 총회가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요 10:10, 롬 8:18-19, 미 7:8, 시 91:2-3)'라는 주제로 28일 충북 청주시 청주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우암교회·성동교회·청주동부교회 등에서 분산 개막했다. 총회는 이틀간 진행된다.

총대 6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총회장에 지난 회기 부총회장 김은경 목사(익산중앙교회)가 만장일치 박수로 추대됐다.

신임 부총회장에는 각각 단독 출마한 강연홍 목사(제주성내교회)와 이규철 장로(나눔의교회)가 선출됐다. 이들은 총대들의 뜻에 의해 투표 없이 박수로 인준받았다.

신임 총회장 김은경 목사는 "발전하던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았다. 100년 전 민족과 더불어 독립을 외

치고, 1960-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여러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회는 대한민국의 위와 소망이 됐다"며 "1980-1990년대 민주화와 분단 현실의 상황을 끌어안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살았고, 그 가운데 기독교장로회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그러나 지금은 교회가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을 그냥 둘 수 없다"며 "106회 총회를 계기로, 주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실 줄 믿는다"고 전했다.

김은경 목사는 "여러분과 더불어 만들어 가는 길이다. 지극히 작은 것을 끝까지 지켜, 새로운 동력과 역사로 함께 나아가는 길에 서고 싶다"며 "어둠 후에 빛이 온다. 세상의 빛이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라고 하신다. 이런 정신으로 106회 총회를 열어가자"고 했다.

부총회장 강연홍 목사는 "역사상 최초로 여성 총회장 선출을 앞두고 있다. 부총회장이 된다면 총회장님을 지근거리에서 열심히 모시고 많은 훈련을 받겠다"며 "제게도 장차 총회장 직임이 주어진다면 받은 훈련을 토대로 교단과 한국교회를 섬겨 나가겠다"고 했다.

강 목사는 "포스트 코로나 대책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섬기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우리의 기본은 예배와 전도, 다음 세대 양육이다. 앞으로 교회 비전은 다음 세대에 있다. 부총회장으로서 빛을 갠 마음으로 총회장을 잘 섬기겠다"고 밝혔다.

이규철 장로부총회장은 "우리 교단은 복음의 자유와 신앙 양심, 하나님의 선교 정신에 따라 민주화를 선도했다"며 "교회와 성도 감소로 총회가 위기에 처했다. 총회장님을 적극 돕고 섬기겠다. 복음으로 돌아가고 예배가 회복돼야 한다. 중소도시, 농어촌 교회 형편을 잘 돌보겠다"고 말했다.

앞선 개회예배에선 총회장 이건희 목사(청주제일교회)가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생명의 자유·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 목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만이 모든 인간을 살리는 명약"이라며 "사도 베드로는 희망에 대해 사람들에게 설명할 준비를 하라고 했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이자 제106회 총회를 준비하는 총대들의 자세"라고 했다.

이대웅 기자

## 인준받은 장신대 김운용 총장 "동성애는 죄"



김운용 총장이 인준 투표 전 발언하고 있다. ©유튜브

### [통합 5] "한두 가지 사건으로 심려 끼쳐 죄송"

장로회신학대학교 이사회에서 선출된 제22대 김운용 총장이 총회에서 인준을 받았다.

김운용 총장은 신학교육부 보고 중 리모컨으로 진행된 찬반 투표에서 총 1,297표 중 찬성 939표, 반대 334표, 기권 24표로 총장 인준에 성공했다.

지난해 제105회 총회에서는 이사회에서 재선에 성공한 임성빈 총장의 인준이 찬성 637표, 반대 704표로 부결된 바 있다.

김운용 총장서리는 "1901년 평양에서 시작된 장신대가 120주년을 맞았다. 교단과 교회, 여러 성도님들이 기도와 후원에 힘입어 주님께서 위임해주신 신학교육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며 "한국교회를 둘러싼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7년 흉년기가 시작되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김 총장서리는 "그동안 장신대

는 지식인보다는 헌신자를, 종교인보다는 경배하는 신앙인을, 세상 지식보다는 십자가의 피땀은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하는 이 전통 위에 굳게 서서 교단 산하 신학교와 연대하여 세움의 사역을 더 섬세하게 감당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는 "한두 가지 사건으로 학교를 염려하는 목소리를 많이 들으셨을 것이다. 학교장으로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그러나 성경의 가치와 교단의 기준을 따라 저는 동성애는 죄라고 확신하게 믿고 있고, 교직원과 학생들도 동성애는 죄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예정 통합총회는 오후 회무중 총회연금재단(이사장 최성목 목사) 보고가 시작되자, 특정인에 대한 언급이 나올 수 있다는 이유로 생방송 중계를 전격 중단했다.

이대웅 기자

## 지하숙소복원과 복벽동족(어린이)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해주세요!

지난 여름 태풍으로 붕괴된 숙소 (10명의 고아들 거주) 복원과 동족들과 어린이들이 추운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신 감사절과 성탄절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힘이 될 것이고 복음통일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기드온동족선교회는 매달 복벽의 동족어린이들에게 영양빵 3,000~5,000개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달 참여하여 도울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모아둔 동전들이 있다면 성탄절 전에 보내주세요. (참여방법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 3.1운동 100주년 기념 "1919유관순" 교회/단체관람(안내)



3.1운동 100주년과 유관순 서거100주년을 기념하고, 초대 교회와 성도들의 하나님사랑과 나라사랑을 감동은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커다란 울림과 사명을 준다. 주중 혹은 주말과 주일에 교회단체관람가능, 관람료는 관람후 자발적인 현금 혹은 \$300 관람비로 합니다. 내년 3월 유관순 서거 100주년을 맞아, 유네스코에 역사인물로 등재가 됩니다 (관람신청은 아래연락처).

### 복음통일을 위한 동족선교구입(안내)



"고난의 대행군 때, 그 땅에 굶주림이 극에 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목마름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술한 입제와 통제속에서도 성경을 알게되면서,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섭리를 깨달아 복음통일의 귀한 병기들로 세워져가고 있음이 이 책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_박상원 목사(편저자)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20/권당+우송료\$5을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우송해드립니다)

NEW

당뇨! 당뇨는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 뉴 프로지골드 출시!



正 品  
100% 정품



Made in U.S.A.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Gold

## PRO-Z

Premium formulation

오래 기다리셨던 아연보충성분 프로-지골드 드디어 출시!  
아연, 크롬 주성분에 홍화씨유와 달맞이꽃 종자추출물(PGG)이 추가된 PRO-Z Gold



✓ 혈당조절! ✓ 면역기능! ✓ 세포분열!

### 혈당, 정상적인 면역기능 때문에 고민이라면?

프로-지 골드가 삶의 활력을 찾아드립니다!  
프로지 골드의 주성분 아연, 미네랄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및 세포분열에도 도움을 줍니다.

## 식후 혈당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프로지 골드

###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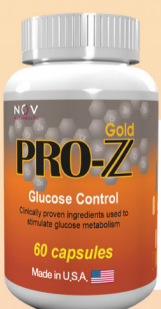
###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 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 약들은 천연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 부종, 신장 부종, 간 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많은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근육세포의 당 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의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39~43 미국 특허 #5,411,748 and #5,997,908

###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하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인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이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신 합성 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에 킬레이트 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 뉴 프로지골드 출시 기념 SALE



1병 구입시  
**\$79**  
+Tax



3병 구입시  
**\$225**  
+Tax



6병 구입시  
**\$432**  
+Tax

213.434.1170

3008 Wilshire Blvd #200., LA, CA 90010  
www.prozgoldusa.com / prozseller@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 아프간 탈레반 “손가락 절단, 치안 위해 매우 필요해”

공개 처형 등 샤리아에 따른 공포정치 시사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이슬람 샤리아 법에 따른 통치의 일환으로 사형과 손발을 절단하는 잔인한 처벌을 집행한다고 선언하면서, 현지 기독교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탈레반 장시자 중 한 명이자 법 집행관인 무라 누루딘 투라비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손가락을 절단하는 것은 치안을 위해 매우 필요하다”며 가혹한 처벌 시행을 시사했다.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투라비는 새 정부가 이러한 처벌을 공공장소에서 집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탈레반 전 정권에서 법무장관을 지냈고, 새 정권에서도 과거 종교경찰의 역할을 했던 권선징악 부 장관을 맡고 있다. 과거 탈레반 집권 당시 살인범은 공개된 장소에

서 총살당했고, 절도범은 손, 강도범은 손과 발을 절단당했다. 그는 “처벌과 관련해 모든 이들이 우리를 비난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법과 처벌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아무도 우리에게 우리의 법에 대해 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슬람을 따르고, 코란에 기초한 우리의 법을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에 본부를 둔 박해감시기구 국제기독교연대(ICC)는 “샤리아에 대한 탈레반식의 엄격한 해석이 이슬람에서 개종한 아프간인 기독교인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며 “배교자로서 사형을 포함한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8,000명에서 12,000명 사이로 추정되는 아프간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이슬람에서 개종한 이들로, 극심한 박해를 피해 사람들의 눈에 띄지



©mbn 캡처

않는 곳에서 지낸다. ICC 남아시아 지역 책임자인 윌리엄 스타크는 이달 초 CP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8월 미군 철수 후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거의 장악했을 때, 아프가니스탄 지하교회와 함께 일해 온 많은 사역자들은 위협에 처한 기독교인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했다”

고 전했다. 스타크는 “기독교인들은 현재 공동체에 대한 거센 위협으로 인해 숨어 있다”면서 “한 이슬람 극단주의자는 기독교인 남성의 딸들을 납치해 탈레반 조직원들과 결혼시키겠다고 위협했다. 또 다른 기독교인 남성은 탈레반에게서 ‘당신의 집은 우리들의 것’이라는 협박 편지를 받

았다. 또 많은 기독교인들은 모임을 자제하라는 경고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가진 연락망조차 안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연락처를 변경했다. 그들은 시골에서 숨어 지내며 외부와의 연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들에게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프가니스탄을 벗어나 여행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특별한 지위”라며 “많은 아프간 기독교인들은 교육을 받지 못했고 여권도 없어서 출국에 필요한 서류를 얻을 수 없는 상태다. 또 이를 위해 정부와 협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나라를 떠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ICC는 미국, 영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아프간 기독교인들에게 세계 다른 곳에서 난민 지위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지위’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강혜진 기자

## 영 ‘성서적 결혼관’ 거리설교 두고 경찰과 대치...체포 위협



영국 런던 전경. ©Unsplash

영국의 웨스트 런던의 한 거리 설교자가 “동성애 혐오 언어”를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아 14명의 경찰관들이 출동해 설교를 중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버킹엄셔에 위치한 펜 자유 감리교회의 피터 심슨 목사는 최근 ‘The Conservative Woman’ 블로그를 통해, 지난달 20일 웨스트 런던의 외곽 지역인 옥스브릿지에서 설교할 당시에 당한 사건에 대해 글을 올렸다. 이 글에 따르면, 심슨 목사는 한 건물 안에서 ‘낙태의 부도덕성’과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만 가능하다’는 성경적 가르침에 대해 20분 가량 설교했다. 이어 그는 로마서 3장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구절을 인용, 인간의 죄적 본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당시 이 구절에 대해 “짤막하게 언급했을 뿐이었다”면서 “경찰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혐오 발언

에 대해 여러 건의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명에서 급기야 14명까지 불어났다. 그는 다수의 경찰들로부터 설교를 중단하고, 건물 밖으로 나가자 않으면 체포될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심슨은 이 상황에 대해 “나는 마지못해 동의했다. 경찰 중 한 명에게 그들이 조사를 하기 보다는, 마치 판사와 배심원 행세를 하고 있음을 시사했다”며 당시의 부당한 상황을 토로했다. 반면, 런던경찰청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동성애 혐오 언어를 사용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정당성을 주장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와의 통화에서는 “그 남자와 이야기를 나눴고, 충고를 했을 뿐, 체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심슨 목사는 올해 4월, 옥스브리지 지하철역 밖에서 또 다른 거리 전도자인 ‘존 셔우드 목사’가 경찰에 체포되던 현장에 함께 있었다. 당시 셔우드 목사는 창세기 1장을 전하면서, 하나님은 가족을 동성이 아닌 어머니와 아버지를 가지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심슨은 이 사건에 대해 “나는 경찰이 옥스브리지에서 동성애 퍼레이드가 열리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불쾌한 일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경찰관들은 이 주장 뒤에 있는 논리를 인정하려는 기색이 안보였다”고 블로그에 밝혔다.

런던경찰청에 따르면, 셔우드 목사는 공공질서법 제5조인 ‘동성애 혐오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아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하루동안 구금된 후 무혐의로 풀려났다. 이후 이 사건은 형사기소 전문 기관인 크라운 검찰청으로 이송됐다. 셔우드 목사의 법률 대리인 ‘크리스천 법률 센터’는 검찰청이 10월까지 그의 기소 여부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4월에는 평신도 사역자인 마이크 오버드 씨는 예브와 서머셋 카운티에서 거리 설교 도중에 코로나 규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오버드의 법률 대리인 기독교법률센터에 따르면, 그는 설교자와 보행자 간의 거리 제한인 2미터를 어긴 혐의로, 건물 퇴장 명령과 함께 벌금 80불(60파운드)을 부과 받았다. 이후 크라운 검찰청은 오버드 사건에 대한 처벌을 기각했다. 7월 22일 런던에서는, 자신을 전도자이자 선교사라고 밝힌 라이언 시아노 씨가 거리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시아노는 CP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말했다. 동성애 의제가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강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끼치는 피해에 대해 말했다”면서 “무지개깃발(LGBT)을 꽂은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고 설교했다고 밝혔다. 이날 그는 정신 건강 진단을 받은 뒤 풀려난 것으로 전해진다. 김유진 기자

## 스위스, 국민투표로 동성혼 합법화... 찬성 64.1%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동성결혼 합법화 첫날, 결혼증명서를 받고 기쁨을 나누는 남성 동성커플

### 이성 커플과 동등한 법적 지위 부여

스위스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됐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스위스는 국민투표를 통해 다른 서유럽 국가들과 같이 동성결혼을 허용하게 됐다고 전했다. 투표 결과 동성결혼 합법화 찬성은 64.1%로, 26개 주 전체에서 과반이었다. 이에 따라 동성 부부는 결혼을 통해 자녀를 입양할 수 있게 됐고, 동성 배우자의 시민권이 허용돼 이성 커플과 동등한 법

적 기반이 마련됐다. 한 관계자는 동성결혼에 대한 행정 및 입법 절차에 수 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앞서 스위스는 2007년 동성커플에 대해 ‘시민 동반자 관계’라는 권리를 부여, 사실상 동성혼을 가능하게 한 바 있다. 그러나 이성혼과 법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동성혼에 반대하는 이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스위스는 1990년대에 모든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확대할 정도로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나라다. 강혜진 기자

# 2021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ATS 정회원
- 대한예수교성도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중준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성도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대학(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이사장: 조종근 박사

16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el: (323)843-0301, Fax: (323)8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master@gmail.com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총회 목사교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 (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 24 / KEB@GGTS.EDU  
WWW.GGB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 (626)857-2200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 부흥의 동의어



김한요 목사  
베델한국교회

다. “지금 한국 교회는 우리 미국 교회보다 ‘부흥’에 가깝습니다.”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교회가 쇠락하고 있다고 자각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흥의 본질을 확실히 짚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흥의 동의어는 성공보단 ‘소망’이 맞다고 봅니다. 앞이 깜깜할 때, 나의 미래는 있는가, 무너진 나의 상황에 소망이 있는가를 겸손히 묻기 시작할 때, 부흥의 싹은 돋기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1907년 한국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은 시기적으로 나라를 잃고 가장 힘들었던 위기 속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감리교 무스(J. R. Moose) 선교사는 한국을 “의지할 곳 도무지 없소.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의 대각성 운동 역시, 예일대에는 크리스천의 학생 수가 소수에 지나지 않았고, 앰허스트 대학(Amherst College)과 쌍벽을 이루는 명문 윌리엄스 대학(Williams College)에는 성찬식을 조롱하는 축제까지 여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위기의식과 함께 일어났었습니다.

최근에 하버드 대학 교목에 무신론자 그렉 엡스타인(Greg Epstein)을 임명한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학교 내 20개가 넘는 종교단체들을 관장하는 면에서 중립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지만, 애초에 하버드 대학이 목사를 키워내기 위해서 세워진 학교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채플린(chaplain, 교목)에 무신론자를 세운 것은 시대적, 영적 위기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15년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이후 급격히 찾아온 영적 도덕적 타락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부흥의 기회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핵심은 이 위기의식 속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를 토하는 회개입니다. 부흥의 동의어는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아마,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오용되는 단어 중의 하나가 ‘부흥’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 사이즈가 커지면, “부흥했다”라고 쉽게 말합니다. 시작보다는 결과를 두고 쓰는 단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공이라는 단어와 바꿔 쓸 수 있는 말로, 부흥이란 말을 쓰면서 비즈니스가 성공하고, 기업의 규모가 늘어나고, 심지어 교회의 교인 수가 늘고 성장하면, 부흥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어나 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부흥은 규모의 크기를 측정하는 말은 아닙니다. 시작한 일의 결말을 본 후, 이해타산을 계산한 후 잉여가 발생하였을 때 쓰는 경제 용어는 아닙니다.

부흥은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는 것이고, 인간 사회의 총체적인 타락과 그 실체에 대한 인정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30여 년 전 뉴욕 맨해튼에 리디머교회(Redeemer Presbyterian Church)를 개척하여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의 하나로 성장시키고 은퇴하신 팀 켈러 목사가 최근에 한국을 다녀오며 하셨던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노성마비 장애로 혼자서는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 50년 넘게 주로 앉아서 생활하다 보니 점점 허리통증도 심해지고 하체에 혈액순환도 잘 되지 않는 것 같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을 알아보고 있다. 하지만 내 장애 특성상 혼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제한돼 있어 장시간 서 있는 연습이라도 해보자는 생각에 한 달 전부터 책상을 잡고 서 있는 운동(?)을 하고 있다.

특별히 바쁜 날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운동을 하다보니 어느 정도 숙달이 됐는지 처음에 한 시간 분량으로 시작한 것이 지금은 아침, 저녁 50분씩 100분 정도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서 있는 것이 나로서도 신기할 따름이다.

또 몸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 종아리와 허벅지에 손으로 잡힐 만큼의 근육이 생겼고, 몸을 꼳꼳이 세우고 장시간 서있으니 어깨와 허리 근육도 쫘 펴져 예전보다 통증도 훨씬 덜한 것 같다. 특별히 가장 기쁜 것이 가만히 서있지만 하는데도 칼로리가 제법 많이 소모되는지 뱃살도 좀 빠졌다는 점이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직립보행’하도록 만드셨는지 충분히 알 것 같다. 이처럼 여러 가지적 효과가 나타나니 뿌듯한 마음이 들어 운동하는 시간이 참 즐겁고 내 몸이 더 건강해질 수 있다

는 희망과 자신감도 생겨난다. 이렇게 운동을 하며 50분 동안 서있다 보면 여기에도 하나의 ‘사이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운동을 시작하고 한 15분 정도까지는 별로 힘든 것 없이 몸이 흔들리지도 않고 꼳꼳하게 서있을 수 있다. 하지만 15분을 지나면서부터 서서히 힘들기 시작해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막 당기고 허리와 발목도 끊어질 듯 아프며 가파른 호흡과 함께 온몸에 땀이 비 오듯 쏟아진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주저 앉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그래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꼭 참고 심호흡을 크게 하며 의식적으로 ‘몸에 힘을 빼면서’ 계속 서 있으면 30분을 경과하면서부터는 내 본래 힘은 다 빠지고 ‘알 수 없는 새로운 기운’이 솟아나 호흡도 안정되고 통증도 덜하며 훨씬 편한 자세에서 50분까지 운동을 지속할 수 있다. 매년 운동할 때마다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다. 이처럼 힘들고 고통스런 순간을 지나면 몸이 훨씬 안정화하니 운동시간을 계속 늘려나갈 수 있는 것이다.

마라톤 경기를 할 때도 이와 마찬가지로 한다. 42.195Km를 땀 때 처음엔 잘 달리다가도 3분의 2구간을 지날 때면 체력이 고갈되어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고통을 견뎌내며 계속 달리다보면

### 거부당할 용기



안성복 목사  
다누리제일교회

말을 남깁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연구를 계속하였고, 결국 전기 배터리를 발명하게 됩니다.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헤리포터라는 소설을 쓴 작가로 유명한 조안 K 롤랑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 시도도 하지 않았다면, 실패한 것이 없어도 삶 자체가 실패인 것이다.”

사람들은 실패할 것이 두려워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끝없는 실패를 통하여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거부당함’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모두가 받아들이면, 얼마나 기쁜 일이고,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거부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아마도, 베이브루스의 714개의 홈런에 1,330개의 스트라이크 아웃보다 더 비율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이브 루스가 스트라이크 아웃이 두려워서 타석에 서지 않았다면, 홈런왕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스트라이크 아웃을 인정하고, 실패를 인정하고, 그리고 계속 타석에 서고, 실패를 딛고 연구를 할 때, 홈런왕이 되고, 발명왕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섬겼던 한 교회는 연말에 ‘전도왕 시상’을 합니다. 매 년, 한 권사님께서 이 상을 독차지 하셨습니다. 교육부를 함께 섬겼던 그 권사님과 대화를 나눔 기회가 있었는데, 권사님께서 한 분을 전도하려면, 대략 30번 이상을 거부당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찾아가 전도하면, 언젠가 그 진심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나오신다고 합니다.

오늘 복음 전도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부당할 용기’가 아닐까요?

‘베이브 루스’라고 하는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미국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홈런왕으로서 1974년 헝크 아론이 그의 기록을 깰 때까지 무려 714개의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홈런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모르는 그의 또 다른 세계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그는 가장 많은 홈런을 친 사람이기도 하지만, 가장 많은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가 당한 스트라이크 아웃은 1,330번으로 당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스트라이크 아웃 기록이었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전기 배터리를 발명하기 위해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고 있을 때, 한 기자가 찾아와 이렇게 질문을 하였다. “이렇게 만 번 이상의 많은 실패를 하셨는데, 어떠신가요? 그래도 실험을 계속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러자 에디슨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실패라니요. 오늘 나는 배터리를 만들지 못하는 만 가지의 이유를 안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 이준수 칼럼

## 몸에 힘을 빼시다!

어느덧 몸이 다시 편해져 끝인 지점까지 완주할 수 있다고들 한다.

비단 육적인 운동 뿐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이와 같은 사이클이 적용되는 것 같다. 인생에서 큰 고난, 시련과 마주할 때 우리는 처음엔 ‘나 자신의 힘’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진장 애를 쓰며 온갖 노력을 다해본다. 그러나 아무리 발버둥쳐도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나의 힘마저 한계에 부딪힌다면 완전히 의욕을 잃고 주저앉아 널브러져 버리기 쉽다.

그러나 이처럼 엄정 힘들고 절망적인 순간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며, 또 이와 동시에 내 모든 능력과 의지를 내려놓고 완전히 발가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인도와 도움을 간절히 구할 때, 어디선가 알 수 없는 힘, 곧 ‘성령의 손길’이 다가와 연약하고 흔들리는 나를 강하게 붙들며 극심한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곤 한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도 내가 가진 힘부터 빼야 한다. 내 영혼이 인간적인 의지와 교만, 세상적인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로 들어와 일하실 수 없다.

오직 몸에 힘을 빼고 나 자신을 철저하게 비울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능력과 은혜로 그 어떤 고난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설령 우리의 인생이 다 할 때까지 그 시련의 시간이 영원히 끝나지 않더라도 결코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또한 나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파스한 위로와 소망, 격려를 선사해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이준수 목사 (남가주밀알선교단 영성문화사역팀장)

### 리프팅/ 지방분해 최신장비 도입

★ 리프팅 라인    ★ 부분 지방분해 S라인

【4회 \$999】    【8회 \$999】

탈모

치질

감상선

당뇨

“ 만성두통, 양쪽 어깨 통증, 뒷목 뻣기고 귀울림(이명), 어지럽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메스꺼리고, 꿈이 많고 깊은 잠을 못 자고, 한쪽 얼굴이 감각이 없거나 눈과 입 주위에 경련, 손과 팔이 저릿저릿하고 시큰거리는 마비증, 턱관절 장애 T.M.J.”

**교통사고 전문병원**

- 초강력 정력제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알라지, 콧물, 코막힘, 눈가려움증, 천식
- 서해부 통증(사타구니)
- 치아 미백 파우더(3달분 \$60)
- 미용침, 아토피, 각종 피부병
- 수족이 얼음처럼 냉한 분
- 발뒤꿈치 통증, 다리 쥐오름
- 옆구리 통증(염통)
- 10일 이상 자궁출혈
- 요실금, 전립선 비대증
- 자궁이 내려앉은 증상

- 치질(항문 문제로 하혈이나 통증)
- 자궁 탈출이나 통증(월경통, 하혈)
- 오심건, 좌골 신경통, 요통, 류마티스 관절염
- 안면 신경마비, 중풍, 심근경색, 지독한 어지럼증
- 각종 위장병, 불면증, 맛없러지, 불안조조, 식은땀
- 감상선, 당뇨병, 여드름
- 다리가 저리고 뻣기고, 무릎통증
- 골프 엘보우, 테니스 엘보우
- 빨간 코, 붉은 얼굴, 머리 속 두드러기
- 자궁 입구 근처에 물혹, 근종 수술 안해도
- 몸 전체 중에 밖으로 나온 혹이나 지방종
- 구연산 캡슐 취급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7~25lbs

- ✓ 손가락
- ✓ 발가락
- ✓ 마디관절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톱 발톱 질환

배배는 숙면계약  
먹으면서 체중 줄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50

한달분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Clinic & Herb

# 영선한의원

영업시간  
월~금, 10시 ~ 5시  
토 10시 ~ 2시

# Tel. 213 380 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아드모아)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 그리스도의 심장

빌립보서 1:3-11



서울성민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3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4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5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6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7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8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9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10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11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심장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그대로 본받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오늘까지 살리셔서 교회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진리의 도리를 깨달아 회개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하늘 소망의 자녀로 하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기쁘게 해 드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의 심장을 본받자고 하는 것입니다.

### 1.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소유(所有)

다른 목회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도된 나 바울은...”이라고 기록하여 자신에게 사도직분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밝히고 나서 문안과 권면으로 내용이 이어졌는데, 유독 빌립보서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교회는 사도 바울에 대하여 한 번도 부정적이거나 불신하는 것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14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서둘러 루디아라는 여인의 만남을 통하여 그 가정 이 복음화 되게 하시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어 빌립보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온갖 진리의 말씀이 하늘소망으로 이끌어갔고, 성령의 다양한 은사와 영역을 체험하며 믿어지는 믿음의 뿌리를 진리 안에 내리게 했었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는 사도바울을 하나님의 사자로 100% 인정했고 그의 지도를 받으며 순종하고 따랐던 교회입니다.

본문 3절에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이라고 말한 것은 빌립보 교회가 진리정통하고 성령충만하여 영적 성숙도가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닮은 신앙인들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바울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세웠지만 그 교회에서 얼마동안 목회사역을 하다가 마케도냐로 떠날 때 이 교회에서 계속 적극적으로 기도로 뒷받침했고, 마

케도냐에 가서 불모지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재정도 엄청나게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바울이 함께 있거나 떠나 있거나 항상 한 가족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앞서고 소망이 넘쳤던 것이며 이것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했습니다. 이 복음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바울이 전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100% 믿고 순종하고 실천하여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더욱 성숙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해 가면서 무슨 일이든지 적극적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라고 되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빌립보교회 모든 성도들은 심령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감동과 지시와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열심으로 협력하는 영적 성숙과 지욕가고 있는 사람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영적인 성과가 바로 빌립보 교회 다니는 신도들의 심령속에서 그들을 깨우치시고 인도하시고 불들어 쓰심으로 나타나는 성과들이었습니다.

6절에서 바울은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너희를 통하여 이루어 내실 줄을 확실히 믿는다고 말합니다.

7절과 같이 바울이 확신을 갖게 된 것은 빌립보교회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큼 소망적이었기 때문이며 그 교회가 하는 역할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과가 넘치는 교회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금식기도까지 했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전달된 선교헌금으로 전세계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중단이 없게 사역을 도와왔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야말로 가르친대로 믿고 자기가 보여준 모습 그대로 닮아서 예수님 닮은 모습들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세계선교를 위하여 시간과 기도와 물질, 이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는 빌립보교회가 사도 바울은 너무나 그리웠던 것입니다. 보고 싶고 함께 있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에 손발이 잘 맞고 잘 통했기 때문입니다.

9절 이하 말씀은 빌립보 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주는 그 사랑의 모든 정성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겠지만 그것보다 사도바울이 기대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서 영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진실되고 허물없이 예수님 재림시는 날까지 그 믿음으로 계속 이어져 성숙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2. 예수님의 심장을 소유한 증거(證據)

미국의 디트로이트라는 곳에 제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자기 인생을 제멋대로 설계하고 노력했지만 끝내 계획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사업도 실패하고 빚 갚을 능력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21살의 딸이 아버지를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 딸은 은혜가 충만해서 영적소망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영적으로 구원 얻고 천국갈 수만 있다면 사업이 망해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마약과 술로 점점 망가져 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간과 심장이 피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어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딸은 아버지의 인생은 아버지가 망가뜨려 놓았으나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도록 다시 한번 살아보자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버지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딸은 포기하지 않고 일기를 써가면서 아버지를 회개시켜 구원얻게 하기위해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사형선고를 받은 후 딸이 전하는 하나님께 의지해보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볼 생각으로 그 딸이 차를 몰고 아버지를 모시러 가던 중 그만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고 맙니다. 병원에서는 죽어가는 이 딸의 심장과 간을 이 아버지에게 이식시키기로 하고 그는 딸의 간과 심장을 이식받아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그의 어머니는 딸의 일기장을 남편에게 보여줍니다.

딸의 일기장에 적혀있는 신앙고백들을 아버지가 읽게 되고 병원으로 목사님을 모셔서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 육신은 딸의 희생 덕분이고 내 영혼은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 덕분입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망해버린 사업도 인수합병으로 회생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후 그는 딸과 예수님께 영육간의 빛진 인생으로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전도회를 결성하고 전도책자를 만들어 자신을 부르는

곳은 어디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얻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사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댓가로 구원을 얻었다면 다른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에 합심 전력해야 할 것입니다.

### 3.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하라

11절과 같이 하나님이 “참으로 잘했다. 네가 한 일은 다 옳은 일이고 선한 열매로 가득하니 너의 믿음이 참으로 보배롭구나”하실 수 있도록 그 믿음을 키질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교회는 빌립보서 4:15-20에서 다음과 같은 칭찬을 듣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번 두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오스본이라는 부흥사는 “나는 손가락 같은 것으로 나누어 주는데, 하나님은 모래사 같은 것으로 퍼부어준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용하고 활용하기가 너무 두렵고 힘이 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부어주시는 목적에 합당하게만 사용하여야 선한 청지기의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신 것같이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본받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이라이프 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기독교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전자동 Z-UP**

# 전동거꾸리

통증을 유발하는 척추디스크는 반듯하게 제자리로 가라!

## 하루 5분으로

허리 통증, 손발 저림 통증, 모든 통증 해결!

영국의 뉴캐슬 대학에서 임상실험으로 허리 수술을 예정했던 환자의 80% 이상이 척추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후 유럽에서는 척추질환 치료 DP수술 대체 치료로 Z-UP 전자동 전동거꾸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형 전자동 전동거꾸리 Z-UP**

**Z-UP 전자동 거꾸리 LOLC Inc.**  
For the Spirit & Body

Tel. (213)703-0240 (웨스턴빌, 1가와 2가 사이)  
147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당뇨! 당뇨는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 뉴 프로지골드 출시!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Gold PRO-Z**  
Premium formulation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근육세포의 당 대사와 핵산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의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39~43 미국 특허 #5,411,748 and #5,997,908

뉴 프로지골드 출시 기념 **SALE**

1병 구입시 <b>\$79</b> +Tax	3병 구입시 <b>\$225</b> +Tax	6병 구입시 <b>\$432</b> +Tax
-------------------------------	--------------------------------	--------------------------------

**213-434-1170** PRO-Z USA  
미국 공식 판매처

김도인의 아트독서 책으로 하나님의 꿈을 가져라

# 100세 시대, 은퇴 후 무엇을 하면서 하루를 보낼 것인가

### 책은 날마다 꿈을 꾸게 해준다

책은 날마다 꿈을 꾸게 해준다. '그 책이 어떤 독자의 손에 들려질 것인가?' '그 책은 얼마나 팔릴 것인가?', '그 책을 읽은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등의 꿈이다. 그리고 '어떤 강의를 들어올 것인가?', '어디에서 강의를 요청할 것인가?'를 꿈꾸게 한다. 책을 쓸 때마다, 강의 요청이 들어오지 않은 적이 없다.

책을 쓸 때는 아주 힘들다. 피를 말리는 듯하다. 하지만 책이 출간되어 손에 쥐어질 때는, 온 세상이 내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행복하다. 소소한 것이지만, 책이 출간된 뒤 아침마다 판매량을 말해주는 세일즈 포인트(sales point)를 체크하는 것도 삶에 활력을 준다.

책이 꿈꾸게 해주는 때 중 하나는 누군가 페이스북에 서평을 올려줄 때이다. 그리고 이메일로 그 책을 통해 배운 것과 느낀 것을 이야기해줄 때이다. 그러나, 진짜 꿈은 '그 책을 통해 독자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상상하는 것이다.

책은 누구나 쓸 수 있다. 그렇다면 나도 책 쓰기에 동참해야 한다. 그러면 꿈이 없었을지라도 꿈꾸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

### 책 쓰기가 불러 일으키는 '나비효과' (Butterfly effect)

책은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킨다. 나비효과란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날씨 변화를 일으키듯, 미세한 변화나 작은 사건이 추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한다.

김진섭은 《책 쓰기의 나비효과》에서 책 쓰기의 나비효과 9가지 중 1, 2, 3, 4, 5, 6, 7, 8, 9를 이야기한다.

첫째, 자신의 재능이나 노하우를 체계화하고 고도화할 수 있다.

둘째, 무한한 꿈을 꿀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열정이 생겨난다.

셋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잠재 능력이 개발된다.

넷째, 자신도 모르게 자기주도적 삶을 살게 된다.

다섯째, 나를 보는 타인의 시선이 달라지고, 어디 가서 말발이 선다.

여섯째, 책으로 출간되어 성공하면, 하루아침에 사회적 지위와 삶의 위상이 바뀐다.

일곱째, 경제적으로 인세와 강의료, 방송 출연료 등을 동시에 노릴 수 있다.

여덟째, 원 소스 멀티 유즈(one source multi use)로 이어지면, 또 다른 파생 사업을 일으킬 수 있다.

아홉째, 암묵지(暗默地)를 명시지(明示地)로 바꾸는 덕을 행하는

것이다. 위 9가지는 책을 쓴 뒤 따르는 결과들이다. 그러므로 책 쓰기에 도전할 가치가 차고도 넘친다.

필자는 책을 씬으로써 하나님의 일꾼 자격을 조금 갖추게 되었다는 마음이 든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면했다는 생각도 든다. 비록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소리는 못 들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책망을 받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필자가 쓴 책을 통해 전혀 모르는 사람과 연결이 되기 때문이다. 필자가 '독서' 책을 쓴 뒤,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연결되는 일이 꽤 있었다.

책은 스스로 일하여 낯선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필자는 내성적이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지 못한다. 하지만 책을 통해 알지 못했던 사람들 꽤 많이 만났고, 지금도 꾸준히 연결되고 있다. 전에는 만나는 사람이 국내에 국한되었었는데, 이제는 해외로까지 연결되고 있다.

책 쓰기가 가져다주는 나비효과와 상상 이상이다. 지금까지 외로움과 친구로 지냈다면, 이제부터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기쁨의 삶으로 여겨질 것이다.

### 사람이 아니라 책이 일한다

책 쓰기를 한 뒤 깨달은 것이 있다. '사람이 아니라 책이 일한다'는 것이다. 책이 일한다. 그것도 매우 잘한다. 웬만한 사람보다 낫다. 몇 사람 몫의 일을 해낸다.

필자는 원래 효율적인 사람이 아니었는데, 책을 쓴 뒤 효율적인 사람으로 바뀌었다. 원래 인간관계의 폭이 좁은 사람이었는데, 책을 쓴 후 사람을 만나는 영역이 넓어졌다. 나아가 책을 통해 많은 강의를 하면서 배움이 깊어졌다.

책을 쓰기 전에는 내가 일하는 줄 알았었다. 책을 쓰고 난 뒤에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책이 일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책은 나보다 많이 일하고, 더 효율적으로 일한다.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책을 읽으면, 그저 가만히 있는 사람이 된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책을 쓰면, 책이 책을 쓴 사람을 가만히 있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책을 쓰면, 독자가 강의를 부탁해 온다. 그리고 '아트설교연구원' 수 강생이 되는 방법도 묻는다. 그래서 책을 쓰면 '관객'이 아니라 필드에서 '선수'로 뛰게 된다.

우리가 책을 써야 하는 이유는, 지금은 글 잘 쓰는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는 시대가기 때문이다. 지금은 책 쓰는 사람이 리더인 시대이다.

전에는 학위의 유무가 중요했다. 그러나 지금은 학습력이 리더를 결정한다. 그리고 학습력의 결정체는 책이다. 이제 학위 있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 책을 쓴 사람이 리더인 시대이다.

미국 화가이자 영화 제작자인 앤디 워홀(Andy Warhol)이 재미있는 말을 했다. "일단 유명해져라.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이 똥을 싸도 박수를 보낼 것이다."

책 쓰기를 하면 많은 사람에게 주목을 받는다. 한 번은 어느 모임에 갔다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 그때, "유명해지면 똥을 싸도 박수를 보낸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님을 실감했다.

책은 일꾼이다. 먼저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다음으로는 나의 일꾼이다. 마지막으로는 세상의 일꾼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더 많은 것이 맡겨진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 하고(마태복음 25:23)".

### 책을 쓰면 인생이 달라진다

많은 사람이 인생의 여정에서 한 번은 하늘을 나는 날개를 달고자 한다. 인생에 날개를 달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책 쓰기이다.

김태광, 권동희는 《생산적 책 쓰기》에서, 책을 쓰면 인생이 눈부시

게 달라진다고 말한다. 가장 많이 달라지는 것이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이다.

책을 쓰면 절망적인 사람도 희망적인 사람이 된다. 김태광과 권동희는, 책을 쓰면 사람들로부터 전문가로 인정받는다고 말한다. 책만 쓰면 박사학위가 없고, 대학교 교수가 아닐지라도 전문가로 인정받는다.

박사학위 3개를 받은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 하지만 그는 책을 한 권도 쓰지 않았다. 필자는 박사학위가 하나도 없지만, 설교에 관련된 책만 5권을 썼다. 그랬더니 '탁월한 설교 연구가', '설교 전문가'라는 말을 듣는다.

박사학위가 없어도 '설교 글쓰기', '설교', '인문학'의 전문가가 되었다. 이는 인생을 눈부시게 달라지게 하는 마법이 책에 있다는 증거다.

### 인생 2막의 기회를 가져다주는 책 쓰기

"은퇴 준비 다 끝났습니다!"  
"은퇴 준비 다 하셨습니다!"

전자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다. 후자는 사람들이 내게 부러운 눈초리로 해주는 말이다.

독서를 시작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은퇴 후, 하는 일 없이 시간을 보내는 선배들을 보고 받은 자극 때문이었다. 은퇴한 선배들을 보니 여행, 손주 보기, 등산, 바둑 등으로 소일하고 있었다.

이유는, 목회자로서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기 위해서였다. 은퇴한 선배들이 어찌다, 푸념조로 이런 말을 한다. "자기 일을 갖고 싶다!" 지금은 100세 시대이므로 은퇴

후에도 일해야 한다. 책을 쓰면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다. 김형석 교수처럼 100세가 넘어서도 일하게 된다.

작가는 21세기에 연예인 다음으로 전망 좋은 직업 2위라는 기사도 있다. 작가는 은퇴 이후를 위한 최적의 준비이다.

작가가 된 뒤, 필자는 주위 사람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한다. "죽을 때까지 할 일을 해냈습니다!"

필자는 죽을 때까지 일하다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았다. 책을 썼기 때문이다. 작가가 되면 은퇴 없이 평생 현역으로 사는 길이 열린다.



김도인 목사 아트설교연구원 대표

### 기독교일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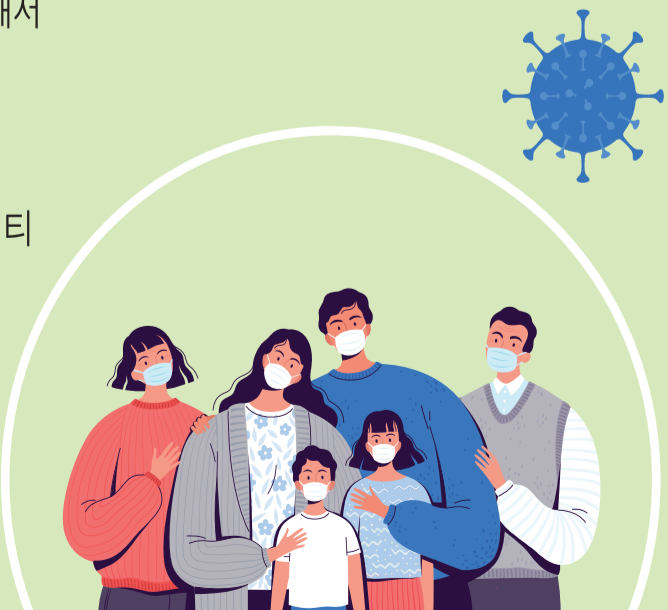
# '무료 코로나19 PCR 검사 및 항체 검사'

기독교일보는 LA 한인타운 인근지역 교회나 단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PCR 검사 및 항체 무료 검사를 제공한다. 최근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 19 전파 고위험 지역에서는 백신접종 2회를 마친 주민도 실내 및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델타 변이가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해서 방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백신 접종 완료 보다 중요한 것은 백신을 맞은 이후 자신의 신체에 코로나19에 대항할 항체가 얼마나 생성되었는지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에 따라 기독교일보는 크리스티뷰 클리닉 연구소와 공동으로 지역 사회 보호와 커뮤니티 안전을 위해 LA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근거리에서 위치한 교회를 대상으로 코로나 19 PCR검사 및 항체 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코로나 19 PCR 검사 및 항체 무료 검사를 원하는 15명 이상의 교회는 예약을 통해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나 소수의 인원도 가능하다. 또한 해외나 한국 방문으로 코로나 검사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도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검사 결과는 2일~3일 뒤 받을 수 있으며, 신분증과 COVID-19 백신 접종자는 접종카드를 지참하면 된다.



**무료 검사 예약 (213)739-0403, (213)434-1170**

# CHRISTIAN BUSINESS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남미디어입니다.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콘텐츠 제작

전도용 물티슈, 주일예배, 교회학교, 마그네틱캘린더, 목회일지, 목회일기, 목회일기, 목회일기

문의 323.265.0244 junimedia@gmail.com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 달려옵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교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환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일찍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세울 호텔 건너편)

이동희 원장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무료 (877)580-2424  
전화 (310)538-333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DTV 미주기독교일보**

미주기독교일보(CDTV)에서는 다양한 기독교 콘텐츠를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최순환 목사의 '스토리가 있는 설교'를 통해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시 한번 리뷰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고, 이 소명 교수님의 'Zoom 목회 나도 할 수 있다'로 온라인 목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GO'를 통해 평신도들의 시각에서 본 교회 속 관계를 솔직하고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콘텐츠를 통해 미주 한인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미주기독교일보 유튜브에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순환 목사의 스토리가 있는 설교



Zoom 목회 나도 할 수 있다



신문GO

유튜브에서 'CDTV 미주 기독교일보'를 검색하세요 **YouTube**

박우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넷플릭스 웹드라마 <D.P.> (2)

# 넷플릭스 <D.P.> 흥행과 모병제 논의, 그리고 교회

장병제, 군 내부 권력 견제와 감찰 실질적 불가능 초래 피해자들 가혹행위, 구타, 왕따, 동성 성추행 등 시달려 2년간 군생활, 사회 진출 그만큼 늦어져... 저출산 요인 군 위해서, 교회 위해서도 모병제 전환 논의 필요한 때



국군의 병영생활 속 부조리와 폭력, 가혹행위를 주제로 삼은 넷플릭스 TV 시리즈, <D.P.>.

◆군대의 권력: 징집제에 의해 노력 없이 유지되는 군 수뇌부의 권력과 이권

군의 규율은 상명하복 원칙을 지켜내는데 달려 있다. 때문에 자신이 관여되어 있는 명령계통은 어떠한 경우에도 파악되고 있어야 한다.

이에 임명대상자는 훈련소 정식 입소 후 가장 먼저 직속상관 관동성명 목록부터 외운다. 이 관동성명 목록의 1순위는 대한민국 헌법이 지정한 군 통수권자, 바로 대통령이다.

공식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실제 장병들이 체감하는 군생활에서 대통령은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인물, 정훈교육 자료 속이나 가끔 비치는 인물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군 내부에 만연해 있는 통념과 고유한 문화를 일거에 개혁하고 개선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어차피 5년이면 바뀔 인물이므로, 군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군의 진정한 실체는 장성들과 고참급 간부들이다. 물론 대통령은 그들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런 허점 대부분은 박병구 중사(김성균 분)가 이끄는 DP조의 수사방식 및 한호열 상병(구교환 분)과 안준호 이병(정해인 분)의 과장된 능력치 및 활약상에 집중되어 있다.

(D.P.)가 묘사하는 병영 내 구타 및 가혹행위, 집단 따돌림, 그 외 여러 악습과 이것들로 인해 조성되는 은근한 긴장감에 대한 묘사는 지극히 사실적이다.

물론 드라마 소재 자체가 그런 악습과 병폐에 짓눌린 병사들의 이야기를 집약해 다루는 D.P.조의 이야기인 만큼, 징집된 장병들이 겪는 고통이 실제 병영생활에서 체감되는 것보다 더 크게 부각된 면도 있다.

목적은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찰과 견제가 없는 권력은 인간 본연의 죄성 때문에 거의 당연하게 질적으로 저하되거나 부패한다. 대한민국 군 수뇌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집권 이후 오랜 기간 이어진 군사정권과 그 마지막 자락을 붙든 노태우 정권 시기까지 대한민국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왔다.

이렇게 군 내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찰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 길어지면서 군 내 권력의 사유화는 하나의 고질적인 병폐로 자리 잡아 버렸고, 그 여파가 징집된 사병들의 병영생활까지 지배하게 되었다.

군 수뇌부는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그 기반이 되는 징병제의 온갖 부조리와 병폐들을 은폐하기 급급하고, 그 가운데 간간히 나오는 병영생활의 피해자들은 가혹행위, 구타, 집단 따돌림, 동성 성추행 등에 시달려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된다.

넷플릭스의 <D.P.>는 여러 곳에서 현실과 괴리된 장면들을 내보냄으로써 연출상 허점을 드러낸다. 하지만 이런 허점 대부분은 박병구 중사(김성균 분)가 이끄는 DP조의 수사방식 및 한호열 상병(구교환 분)과 안준호 이병(정해인 분)의 과장된 능력치 및 활약상에 집중되어 있다.

(D.P.)가 묘사하는 병영 내 구타 및 가혹행위, 집단 따돌림, 그 외 여러 악습과 이것들로 인해 조성되는 은근한 긴장감에 대한 묘사는 지극히 사실적이다.

물론 드라마 소재 자체가 그런 악습과 병폐에 짓눌린 병사들의 이야기를 집약해 다루는 D.P.조의 이야기인 만큼, 징집된 장병들이 겪는 고통이 실제 병영생활에서 체감되는 것보다 더 크게 부각된 면도 있다.

하지만 드라마에 묘사된 악습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대부분의 사병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것들이고, 일부 부대에서는 그보다 더한 일도 실제로 벌어진다.

당장 이 논평을 작성하는 9월 7일 당일에도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휴가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해군 장병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있다.

### ◆군대의 유지: 모병제 전환을 통한 국방력 유지와 병영생활 개선

징병제가 이 모든 부조리와 악습의 유일한 원인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병영 내 다양한 악습과 인권유린 상황을 유발하는 핵심 원인 가운데 하나임은 부정할 수 없다.

징병제는 군 수뇌부의 권력을 '자동적으로' 유지하게 해주는 원동력이 된다. 특별한 신체적, 정신적 결함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징집 연령대 남성이 군에서 봉사한다.

따라서 군 수뇌부는 사병들을 굳이 아낄 필요가 없다. 개인의 인사고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군 실세들은 사병들을 자신들의 권력 유지 수단이자 도구로만 다루게 된다.

이는 특정 군 지휘관들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이다. 누가 지휘관이 되더라도 사병들

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군 내부에 고착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 더해 일부 몰지각하고 이기적인 지휘관들은 군 본연의 국방 업무와 상관없는 사익(私益)을 위한 일에 사병들의 노동력과 재능을 일상적으로 투입하기도 한다.

반면 모병제 국가에서는 군이 병력 자원을 모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군인에 대한 처우가 형편없고 내부 부조리가 만연해 있으면, 청년들이 아예 군에 자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군의 권력과 힘은 무너진다.

이에 국가는 국방을 위한 군사력 유지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군 실세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 유지를 위해서라도 모집되는 사병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높여야 한다. 여기에는 분명 상당한 비용이 든다. 그리고 군이 스스로 체질개선을 위해 각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군은 그런 비용과 노력을 감수하고서라도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우선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모병제 전환을 요청할 마땅한 근거가 된다. 사회생활을 막 준비하고 시작해야 할 시기 2년을 강제로 허비한 남성들이 지닐해야 할 사회적 기회비용은 막대하다.

같은 나이에 여성들에 비해 취업 활동 개시 시점이나 사회진출 시점이 2년 늦어지면서, 이들의 혼인도 당연히 시기가 늦어진다. 이는 출산 기회 축소를 가져오고, 결국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는 하나의 주된 원인이 된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해 절대적인 병력 수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10년 내로 도래한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군에서는 선제적으로 자동화를 서두르고 기술력에 특화된 군 병력 양성을 시행해야 한다.

현재 2년도 채 되지 않는 징집 기간 동안의 교육과 훈련으로는 장래의 국방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숙련된 병력 양성이 어렵다.

장병들이 보직에 익숙해질만 하면 제대하는 일이 반복되어, 결국 미숙련 병사들의 교육과 훈련에 다시 과도한 힘을 쏟아야 한다. 이는 현재 국군이 보이고 있는 여러 업무상, 작전상 미숙함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 한국보다 더 심한 군사적 위협을 받는 대만은 2018년 징집제를 전면 폐지했다.

모병제 전환은 당연하게도 병영 선진화에 일정한 도움을 줄 것이다. 군 수뇌부가 병영생활의 악습과 폐단 문제를 방지하면 병력 모집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모집된 장병들 또한 직업군인으로서 자신의 경력을 쌓아야 하기에, 동료들에게 질책받고 원한을 쌓을 일을 기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악질적인 갈굼과 가혹행위는 사병들 모두가 강제로 징집되어 인생의 귀중한 시기를 허비하는 상황에서는 온전하게 해결될 수 없다.

악질적으로 후임을 괴롭히든 말든, 업무에 태만하든 말든, 자기 신변에 큰 위협을 줄 만한 기록이 남는 경우만 아니면 다 똑같이 군복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군 자체의 여러 문제를 보더라도, 모병제 전환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기독교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군 내부에서의 전도 사역 및 교회의 청년 사역을 위해 모병제 전환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징집제 폐지는 청년들의 신앙생활과 훈련의 단절을 방지할 수 있고, 또 많은 이들이 군에서 겪는 부조리함과 환멸 때문에 신앙의 열심이 식어지는 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계속>

박우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악독한 선임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심성이 망가진 조석봉 일병(조현철 분).

## 부목사 청빙

캘리포니아 LA 동부 Chino Hills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에서 함께 동역하실 Full-time 부목사를 청빙합니다. [www.sunhanchurch.com](http://www.sunhanchurch.com)

### 1. 지원 자격

- 1) ECO (복음언약장로교 A Covenant Order of Evangelical Presbyterians, [www.eco-pres.org](http://www.eco-pres.org)) 교단에 속해 있거나 교단 가입이 가능하신 분
- 2) 정규 신학대학원(M.Div) 졸업자
- 3) 현 거주지가 미국이고, 미국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 4) 장년부 사역 유경험자

### 2. 모집분야

- 1) 풀타임 부목사 (1명)

### 3. 제출서류

- 1) 이력서 1부 (사진 첨부) - 미국에서의 자신의 법적 신분 명시(예: 영주권자)
- 2) 자기소개서 1부 (신앙고백 및 간증문, 사역 및 일반 경력, 은사, 가족소개 및 사진)
- 3) 최근 1년 이내 설교 영상(2편): 유튜브 링크
- 4) 추천인 2명 이름과 연락처  
(이중 한 분은 반드시 현 사역교회 담임목사 혹은 직 전 사역교회 담임목사이어야 함) - 추천서는 1차 서류심사 후 선정되는 분에 한 해 추가로 요청합니다.
- 5) 신학대학원(M.Div) 졸업 및 성적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목사 안수증명서 각 사본 1부

### 4. 지원 및 문의

- 1) 이메일 [resume@sunhanchurch.com](mailto:resume@sunhanchurch.com)로 문의 및 지원해 주세요. 이메일로만 문의/접수를 받습니다.
- 2) 접수마감: 2021년 9월 20일까지
- 3)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비밀을 보장합니다.
- 4) 1차 서류 심사 후 면접 대상자들에게 개별 통보해 드립니다.
- 5) 최종후보자는 원본 제출을 요구합니다.

선한목자교회

## Full-Time 사역자 청빙

LA 동부에 위치한 동부사랑의교회(담임목사 우영화)에서 함께 교회와 예배를 섬길 동역자를 찾습니다.

본 교회는 미국장로교(PCA)에 소속된 교회로 역동적인 예배, 변화되는 훈련, 하나되는 교제,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육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 ■ 모집 영역

- 1. 교구담당 부목사 (Full-Time Position)

### ■ 자격요건

- 1. 신실하게 팀 사역을 감당할 목회자
- 2. 장년교구사역 경험이 있으신 분
- 3. 정규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 (M.Div.)
- 4. 미국 거주 및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 ■ 제출서류

- 1. 이력서 (가족사진 첨부)
- 2. 자기소개서 (가족 소개 포함)
- 3. 최근 2편의 설교 영상 (링크나 파일)
- 4. 목회자 2인의 추천서  
1. 목회자 2인중 한 분은 현재 혹은 이전에 섬긴 교회의 담임목사님으로 부탁드립니다.  
2. 추천인께서 직접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5. 졸업 증명서 또는 학위 증명서
- 6. 목사안수증명서

### ■ 서류제출방법

- 1. 서류마감 : 모든 서류 마감은 10월 20일 수요일까지입니다.
- 2. 제출방법 : 모든 서류는 이메일([eastarangweb@hotmail.com](mailto:eastarangweb@hotmail.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3. 모든 서류는 청빙을 위한 과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청빙이 마감되면, 모든 서류는 파괴됩니다.

### ■ 문의사항

- 1. E-Mail | [eastarangweb@hotmail.com](mailto:eastarangweb@hotmail.com)
- 2. 교회 웹사이트 | [www.eastarang.org](http://www.eastarang.org)
- 3. 전화 | 909-590-3722

LA 동부사랑의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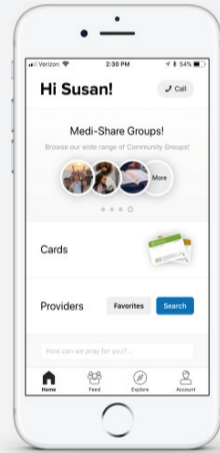
# 저렴한 의료보험 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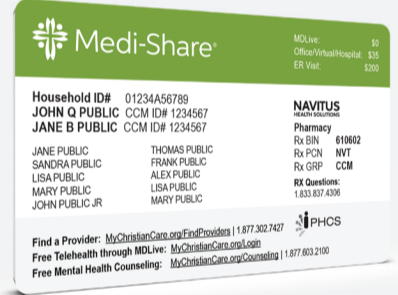
미전역 40만 회원과 90만 PPO 네트워크의 **Medi-Share**가 높은 건강보험료 부담없이 무제한 의료비 문제 해결해 드립니다.



핸드폰으로 MDLive를 활용, 24/7 미국 어디서든지, 무료로 의사 진료를 받으세요.



Medi-Share 앱을 사용, 편리하게 PPO 네트워크내에 있는 의사나 병원을 찾으세요.



회원은 간단히 멤버십 카드 제출, Medi-Share와 의료기관이 직접 의료비 처리를 합니다.

## Medi-Share의 무제한 무료 혜택들과 할인 혜택들



원격의료  
(Telehealth)



원격상담  
(Telecounseling)



치과 할인  
(Dental)



안과 할인  
(Vision)



의약품 할인  
(Pharmacy)

## 매월 최대 50% 또는 그 이상 절약

새 가격 옵션이 더해졌습니다! Co-Share와 Direct Primary Care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1인 가정**  
최대 매월  
**\$128**  
까지 절감

**2인 가정**  
최대 매월  
**\$370**  
까지 절감

**3인+ 가정**  
최대 매월  
**\$570**  
까지 절감

**65세 이상**  
매월  
**\$70**  
부터 시작

한국어 서비스 833-742-7342, 가입문의 213-434-1170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008 Wilshire Blvd. #200 LA, CA 90010 email: [prozusa2@gmail.com](mailto:prozusa2@gmail.com)  
캘리포니아와 뉴저지 주 무보험자 벌금면제 기관입니다.  
메디셰어는 보험이 아니지만, 오히려 우리 회원들은 그게 더 좋다고 합니다!